2017년 연구사업 결과(요약서)

PEET 선진화를 위한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국제 동향 조사연구(오희진, 부산대)

국내 약학교육은 2006년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학대학 외의 다른 학과(학부)에서 기초 소양 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과 각 대학의 입시를 거쳐 약학대학에 편입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09년도부터 기존의 4년제에서 현행 2+4 학제가 운영되고 있다. 약학교육 학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의 이동에 따른 약사 전문성 강화와 제약산업 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필요성 강화 등 국내외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약학연맹(FIP)은 미래약사는 보건의료인(caregiver), 의사결정자(decision-maker), 지도자(leader), 의사소통능력자(communicator), 경영자(manager), 평생학습자(life-long learner), 교육자(teacher), 연구자(researcher)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행의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및 약학교육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 미비, 교육 효율성 저하, 미래지향적 약사인력 및 창의적 약학인재 양성의 어려움 등 약학교육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약학교육의 미래비전과 핵심전략 및 약학교육 방법의 재고찰 및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적 약학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역량'이라는 개념이 1960년대에 소개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성과기반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성과기반교육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성과기반교육은 교수-학습의 방법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 상황에서 성과는 학습자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학습의 궁극적인 결과를 실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성과기반 교육에서는 전통적 교육방식과는 달리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what to know)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what to do)와 어떻게 하느냐(how to do)에 초점을 둔다. 성과기반교육은 의약학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기존의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힐 것이라는 가정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적용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교육학, 간호학, 치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서 성과기반 교육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성과기반 교육이 적용되고 있다.

약학교육에서는 역량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에 등장하였지만, 약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더불어 약사의 역할이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성과기반 교육모델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약학교육은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초과학 및 환자중심의 약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기반 교육모델의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 약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기반 약학교육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약학교육 내 공유 확산 및

국내 약학교육에 있어서의 성과기반교육의 도입을 위한 주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외 약학교육에서의 성과기반교육 적용 사례 및 방법과 국내 의학계열(의대, 치대, 간호대 등) 교육에서의 사례와 방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외 약학교육에의 성과기반 교육모델 적용 사례는 전술한 바와 같음. 관련하여 성과(outcome) 또는 역량(competency) 기반의 약학교육에 대한 학술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 Bruno가 약학교육에서 성과기반 교육을 주장한 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성과기반 약학교육 현황 조사대상국으로 미국, 캐나다, 주요 유럽국가, 일본 등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이미 2004년 성과기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용해왔으며, 캐나다는 2010년에 캐나다약학교육협의회가 약학교육에서 지향하는 성과(outcome)을 제시하였다. 호주약학회는 2010년에 표준화된 성과기반 교육체계를 공표하였으며, 유럽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학 교육에서의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2016년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2013년 약학교육핵심교과과정 개정을 통해 성과기반 약학교육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많은 국가가 약학교육에 성과기반 교육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보건기관과 약학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약사의 역량과 약학교육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사의 역량을 임상약사로 제한하지 않고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전문가집단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건/약학교육 체계가 물질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보건인/약사 양성 중심이었다면, 환자중심의 철학으로 변화를 핵심으로 약학교육도 변화하고 있다. 의약학 관련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의 성과기반교육을 살펴본 결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관련 해당 대학의 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평가 인증기준 개정하면서 교육성과 및 역량을 체계화하고 있다.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전문분야로서 의/치/간호학 분야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며, 교육성과 및 졸업역량을 규정하여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미래약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을 함양하고 환자중심의 약무를 실천하는 약사를 길러내기 위해 국내 약학교육에서는 성과기반 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우선, 좋은 약사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수한 약사의 자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약학교육의 미션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약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약학교육 프로그램이 약사의 핵심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상위영역(교육 철학 및 미션)부터 하위영역(단위 수업 또는 강의)의 성과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성과기반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약학교육에 대한 공통 비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